

메디컬투데이 > 산업



빛으로 당뇨 진단하고 망막증 치료 기술 개발 소식에 영인프런티어

메디컬투데이 지용준(yjun89@mdtoday.co.kr) 기자
입력일 : 2020-01-09 15:15:56

[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] 국내 연구팀이 빛을 이용해 당뇨를 진단하고 망막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영인프런티어가 강세다.

9일 오후 3시 10분 현재 영인프런티어는 전 거래일 보다 21.85% 오른 5270원에 거래되고 있다.

포스텍 한세광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이날 당뇨 진단 및 당뇨성 망막질환 치료가 가능한 스마트 포토닉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.

연구팀은 각막과 눈꺼풀 안쪽에 있는 혈관의 당 농도를 근적외선 빛으로 실시간 분석할 수 있는 초소형 발광다이오드(LED)와 광검출기가 장착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, 당뇨 진단에 성공했다.

영인프런티어는 지난해 8월 한세광 교수가 창업한 화이바이오메드와 지분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.

메디컬투데이 지용준 기자(yjun89@mdtoday.co.kr)

<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, 건강 신문 © 메디컬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
 프린터